



[금융] 신한銀 퇴직연금 압도적 수익률 '원금非보장' 공략 주효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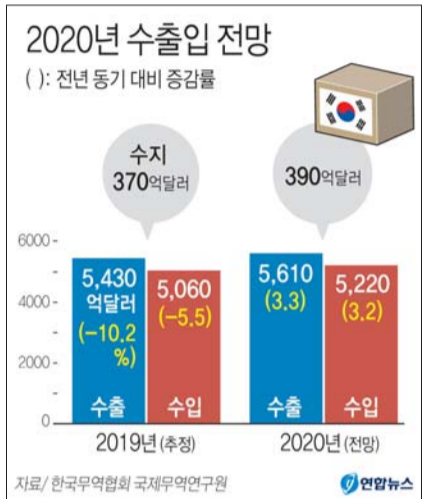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087.96 (0.00)	코스닥	632.99 (0.00)
금리 (국고채 3년)	1.39 (-0.05)	환율 (원-달러)	1181.20 (+2.20) (11월29일)

결국 1년내내 뒷걸음 참담한 '수출 흑역사'

국회가 보내온 연말 선물은 '의정파탄'

11월도 14%, 441억달러 감소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부진
日 수출규제 등 악재 잇따라
2016년 이후 3년만에 '역성장'
2년연속 6000억 달러도 무산



수출한국이 흔들린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부진, 일본 수출규제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한국 수출이 1년 내리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력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의 부진이 계속된 데다 대형 해양 플랜트 인도 취소, 조업일수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중 수출 감소폭이 둔화했고, 그동안 부진했던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서는 등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나오면서 내년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

정부는 내년 무역금융을 올해보다 2조3000억원 이상 늘린 158조원 공급하는 등 움츠러든 한국 수출을 다시 일으키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수출 12개월 연속 감소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11월) 통관 기준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줄어든 441억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1.7%를 시작으로 지난달 -14.3%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하락곡선을 그린 셈이다. 이로써 올해 수출은 2016년(-5.9%) 이후 3년 만에 '역성장'에 빠질 것이 확실시된다. 2년 연속 6000억달러 달성 목표도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 수출이 꺾인 것은 여러 악재가 겹치며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미중 무역분쟁이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최대 수출처인 대중 수출이 급감하며 한국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미중 무역분쟁이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최대 수출처인 대중 수출이 급감하며 한국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한국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의 부진도 한몫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106억8000만달러에서 지난달 73억9만달러로 30.8% 급감했다. 반도체 단가 회복도 지연되는 추세다.

◆日규제 수출 영향-생산차질 '거의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가뜩이나 짜뿌린 한국 수출에 다시 한번 찬물을 뿌렸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10.9% 줄어들어 최근의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달 대일 수출은 10.9%, 수입은 18.5% 감소했다. 현재까지 국내 관련 산업의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또 한국보다는 일본이 받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7~10월 누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율은 -14.0%로 한국의 대일 수출 감소율 -7.0%의 두배에 달했다.

◆무협, 내년 수출 반등 기대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과 수입이 각각 작년보다 10.2%와 5.5% 줄어든 5430억달러와 50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2009년(-13.9%) 이후 처음이나 연간 무역액 1조 달러는 턱걸이하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 신남방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은 수출 다변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분석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 못하고 '네 탓 공방' '보류' 일관하던 예산조정소위 안건 482건, 513.5조 처리불발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정국'을 앞두고 난장판이 됐다.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째짜미 밀실 심사하는 소소위원회 구성도 못했고,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는 여야 '네 탓' 공방으로 본회의가 과했다.

〈관련기사 4면〉

먼저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실패는 2013년 이후 올해가 5년째다. 여야는 2014년부터 헌법이 정한 처리기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안이 대치의 불모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며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다는 국회 선진화법을 2014년부터 시행했다. 선진화법 도입 후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류'로 일관하던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482건이었다.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대한민국 살림살이 심의는 올해도 줄속으로 넘어갔다.

예결위 파행에 이어 민생 법안 199개도 여야의 '실의 쟁기' 셈법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예정했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표결할 법안 대부분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보장,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 방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행 방해'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표결 안건에는 여론이 주목한 '민식이법'도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이 여야 정쟁의 불모로 잡히자 한국당은 되려 못매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오후 "나 원내대표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당 해체 촉구 글까지 올라왔다.

한국당은 "말은 올바르게 하라"는 입장이다. 민식이법 통과를 민주당이 막았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회피)했는가, 의원 5분의 1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라고 반문하며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필리버스터 원천 봉쇄를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석대성 기자

더 크고, 고급스럽게... 완성차 '덩치 전쟁'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전장 4990mm... 웅장한 인상 강화
기아차, 3세대 'K5' 동급 최대수준 휠베이스 '공간향상'



현대차 더 뉴 그랜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며 올해 막바지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출시된 모델의 특징은 '더 크고, 더 고급스럽게'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달 선보인 신형 그랜저와 K5를 비롯해 수입차 브랜드들도 넉넉한 실내공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춘 신차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스포츠유틸리티차(SUV)뿐 아니라 세단도 이전 세대 대비 휠베이스를 늘리고 있다.

현대차가 3년 만에 부분변경을 거쳐 출시한 더 뉴 그랜저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첨단 신사양 적용을 통해 신차급 변화를 달성했다. 전장이 4990mm로

기존보다 60mm 늘어나며 차량의 웅장한 인상이 강화됐고 휠베이스(축간거리)를 기존보다 40mm, 전폭을 10mm 늘려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을 확보했다. 더 뉴 그랜저는 이같은 변화를 통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의 인기 식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단의 잠재력을 재확인했다. 더 뉴 그랜저는 영업일 11일 만에 사전계약 3만2179대를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기아차가 지난달 선보인 3세대 K5는 2850mm의 동급 최대 수준 휠베이스와 기존 대비 50mm 늘어난 전장(4905mm), 25mm 커진 전폭(1860mm) 등

확대된 제원을 통해 공간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20mm 낮아진 전고(1445mm)로 다이내믹한 스포티 세단의 모습을 갖췄다.

국내 완성차 대비 좁은 실내 공간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수입차 업체들도 크기를 키우고 있다.

전 세계에서 1550만대 이상 판매된 BMW의 가장 성공적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자 베스트셀링 모델인 3시리즈도 크기 경쟁에 합류했다. 전장은 76mm 길어진 4709mm, 전폭은 16mm 늘어난 1827mm, 전고는 6mm 높인 1435mm, 휠베이스는 41mm 더 길어진 2851mm다.

뿐만 아니라 국내 출시된 뉴 3시리즈 엔진 라인업은 총 2가지로 뉴 320d는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 뉴 330i는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성능을 각각 갖췄다. 이전 모델보다 무게를 최대 55kg 줄였으며 10mm 낮아진 무게 중심에 50대 50의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구현했다.

(6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